

### 성북구, 아버지·자녀 참여 '붕어빵 러너즈' 운영...건강·소통·봉사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아버지와 초등학생 자녀가 함께 달리며 건강한 여가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가족 러닝 프로그램 '성북 붕어빵 러너즈'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

'성북 붕어빵 러너즈'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아버지와 초등학생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모습의 부자가 함께 달리며 소통하고 추억

을 쌓는 데 목적을 둔다.

모집 규모는 총 8가족으로, 참여 가족은 '팔봉 크루'와 '슈봉 크루' 두 개의 크루로 나뉘어 활동한다.

참여 가족들은 4월부터 11월까지 주말 오전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러닝 활동에 참여하며 운동 습관을 기르게 된다. 이와 함께 동네 환경정화를 위한 플로깅 챌린지, 지역 안전을 위한 야간 순찰대 활동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 프

로그램도 병행된다.

최종 미션으로는 10월 5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일정이 포함됐다.

현재 참여 신청을 받는 중이며 오는 4월 3일까지 성북구 가족센터 누리집(☎02-6263-5614)을 통해 가능하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아버지와 초등학생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 정조 화성행차 때 묵었던 숙소 '시흥행궁'...금천 문화유산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관내 어린이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인 시흥행궁을 보다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에는 1795년(음묘년) 정조가 화성행차 때 묵었던 임시궁궐인 시흥행궁이 있다. 정조는 이곳에서 백성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구는 지난 2022년 시흥행궁을 기념해 시흥행궁전시관을 개관한 후 시흥행궁 역사와 의미를 알리는 전시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초등학생 4~6학년 학급 단계를 대상으로 '시흥행궁전시관 2026년도 초등학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생 교육프로그램은 학기별로 2개씩 총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학기에는 3D펜을 활용한 창작 체험과 오르골 제작 체험, 2학기에는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역사 골든벨 퀴즈 등을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시흥행궁전시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한편, 오는 4월부터는 어린이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여기가 어딜까?'도 운영한다. 만 4세~6세 어린이 단체에게 시흥행궁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한다.

프로그램은 시흥행궁 모형과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활동과 색칠놀이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열쇠고리(키

링)를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자연스럽게 금천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

구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해 처음 운영했을 때 지역주민의 높은 호응을 얻어, 올해도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지역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전시관을 친숙한 문화 공간으로 경험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인 시흥행궁전시관이 금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 BTS빛으로 물든 광화문 일대, 봄꽃길과 해치 라이트

서울광장, 청계광장, 세종대로 일대... 봄꽃 식재로 내·외국인 환영 맞이  
BTS 신보 아리랑에 맞춰 붉은 빛의 튤립, 아네모네 등 46종 32,860본 식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세종대로 광화문 일대 다채로운 색채가 어우러진 봄꽃을 식재하고, '해치 라이트 가든'을 함께 조성하여 봄맞이 단장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서울의 공원과 매력기든 곳곳에 봄꽃을 식재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선사하고 있다. 올해는 광화문 삼거리에서 시청 교차로에 이르는 약 1km의 구간에 BTS의 컴백 기념 공연 분위기에 맞춰 신보 아리랑에 어

울리는 붉은 정원길을 조성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가로변을 따라 걸으며 만날 수 있는 이번 정원은 다양한 색상의 봄꽃을 활용해 싱그럽고 생동감 있는 경관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광장은 튤립·수선화, 청계광장은 페라고늄·목마가렛, 세종대로 사람숲길은 튤립·별비덴스 등 총 46종 32,860본의 봄꽃을 식재하여 화사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정원을 조성했다.

특히 튤립, 아네모네, 페라고늄, 꽃양귀비, 라넨큘러스, 사계 장미 등 붉은 계열의 색감을 강조한 식재 디자인을 통해 세종대로를 찾는 시민들에게 강렬하고 화사한 봄 풍경을 선사한다.

또한 서울광장 덕수궁 돌담길 방향 입구에는 대형 해치 조형물 설치 및 빛과 조명이 어우러진 '해치 라이트 가든'을 마련하여, 붉은 색과 노란빛 조명을 더해 봄 밤의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별 모양 조명 등 다양한 빛 장식도 함께 설치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해치 라이트 가든'은 일몰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지난해 푸르른 새 잔디로 도심 속 녹색공간으로 탈바꿈된 잔디광장과 함께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휴식과 활력을 제공하며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인기를 끌 예정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BTS 팬들 뿐만 아니라 국내·외국인 모두를 위한 환영 메시지를 담아 특별한 색감의 봄꽃 정원과 해치 라이트 가든을 조성했다"며 "많은 분들이 빛의 경관과 꽃길을 걸으며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 강남구, '삼성동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3월 25일 오후 4시, 대치2동복합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삼성동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삼성동 일대에서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코엑스 부지 개발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삼성동은 교통·업무·전시·문화·국제 교류 기능이 집약된 강남의 중심축으로, 이들 사업은 강남의 도시 구조와 생활권은 물론 미래 100년의 성장 기반을 바꿔갈 장기 프로젝트로 꼽힌다.

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사업의 추진 개요와 주요 경과, 향후 일정은 물론 사업 간 연계성과 기대효과를 주민

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분진, 교통 불편 등 생활민원사항에 대한 의견도 함께 청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대차 GBC 건립 사업은 옛 한전부지에 첨단 업무시설과 호텔, 전시장, 공연장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당초 105층 계획에서 49층 타워 3개동으로 조정해 추진 중이며, 2031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도심숲과 전방대 등 시민 개방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삼성동 일대의 국제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 지하공간에 GTX-A·C, 위례신사선 등 5개 노선을 아우르는 통합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1년 토목공사 착공에 이어 2025년 2월부터 건축 및 시스템 공사에 들어갔다.

2026년 6월 GTX-A 전 구간 연결에 맞춰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시작되며, 전체 사업은 2028년 최종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상부에는 대규모 보행 녹지광장이 조성돼 시민들이 걷고 머물 수 있는 도심 속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 서울런 회원 914명 대학 합격, 역대 최다...진로·시콘텐츠 지원

진로캠퍼스·시진로진학 코치 등 진로 지원 강화... 신규 콘텐츠·멘토링 3종 신설도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으로 공부한 수능 응시자 1,477명 중 914명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가 전년(2025학년도 782명) 대비 132명(16.8%)이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 해마다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진로 캠퍼스, 진로·진학 AI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AI 역량 강화, 코딩 등 신규 콘텐츠를 도입, 학습지원부터 진로와 취업까지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 '서울런 3.0'으로 도약을 더 탄탄하게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으로 공부한 수능 응시자 1,477명 중 914

명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가 전년(2025학년도 782명) 대비 132명(16.8%)이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 해마다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진로 캠퍼스, 진로·진학 AI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AI 역량 강화, 코딩 등 신규 콘텐츠를 도입, 학습지원부터 진로와 취업까지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 '서울런 3.0'으로 도약을 더 탄탄하게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규 온라인 콘텐츠도 확충한다. ▲ AI·프로그래밍 실무역량 강화 과정인 '클래스101'과 '구름에듀 코딩스쿨' ▲초등학생 학습 플랫폼 '온리원'을 추가, 앞으로 서울런 이용자는 총 26개 온라인

콘텐츠 중 최대 6개까지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된다.

AI 역량 강화(셋GPT 활용 등), 직무창업, 언어, 취미창작 등 4천 개 이상의 콘텐츠를 수강할 수 있는 '클래스101'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름에듀'를 통해서도 수준별 소프트웨어·코딩을 학습할 수 있다.

진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이 3년 연속 대학 합격자 증가부터 사교육비 절감, 학습역량 향상, 취업자 증가까지 지원분야 전반에서 성과를 입증하기 시작했다"며, "올해부터는 변화하는 시대상상에 걸맞은 AI 역량 강화 등 학습뿐만 아니라 진학, 진로, 취업까지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발돋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 도심 열섬현상 빗물로 잡는다, 서울시 빗물관리시설 본격 확대

서울시는 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성북구 등 9개 자치구의 1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빗물정원 등 물순환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투수율 70% 이상 소구역 대상에 자치구 신청을 받아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등 빗물 관리 분야 외부전문가의 엄격한 서면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시예산 10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하여 총 20억 원 규모의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단일 시설 위주의 산발적 설치에서 벗어나, 빗물정원·식생수로 등 '식생형'과 투수 포장·침투트렌치 등 '침투형', 저류조 등 '저류형'을 현장 여건에 맞게 혼합해 연계성을 높이고, 강우 시 유출량 저감과 오염물질 제거를 동시에 달성하는 '혼합형 빗물관리시설'을 표준화한다.

특히, 차도 빗물 관리를 위한 식물재배 화단 등 식생형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도로면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타이어 분진 등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모아 자연스럽게 걸러내고 땅속으

로 스며들게 해 강우 시 유출량을 줄이고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2025년 투수블록 및 빗물정원 조성 등 총 7개소의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을 완료했으며, 영등포구와 관악구에서는 대규모 빗물정원 중심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유출수의 침투·저류 연계 체계를 더욱 정착시키고, 빗물정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경관과 보행 안전까지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정성 기자

### 서울월드컵경기장 전면 다회용기 도입...폐기물 11t 감축

서울시는 오는 22일 FC서울 홈 개막전에 맞춰 서울월드컵경기장 내의 음식 용기를 다회용기로 전면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설공단, GS리테일, FC서울, 베스트 푸드트럭협동조합과 협력해 경기장 내 편의점과 푸드트럭에서 제공되는 음식 용기를 다회용기로 바꾸는 지원 순환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경기장 안팎 GS25 편의점과 북측광장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닭강정, 떡볶이, 여묵 등 음식은 모두 다회용기에 담겨 제공되며, 관람객은 취식 후

전용 반납함에 반납하면 된다.

시는 올 시즌 약 40만 개의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해 약 11t의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반납 편의를 위해 전용 반납함 25개를 3층·5층 계이탈과 외부 광장에 집중 배치하고, 관중 규모에 따라 안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반납 동선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회용기는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용 반납함에 넣어준다.

위생 관리는 전문업체 잇그린이 맡아 수거 후 고온 세척과 살균 등 7단계 공정

을 거친다. 시는 오염도를 나타내는 RLU 기준을 20 이하로 유지해 일반 민간 기준(200RLU)보다 10배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월드컵경기장 다회용기 도입은 시민들이 스포츠 관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시설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제로 웨이스트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